

BL 웹툰의 스토리텔링 전략 연구 - <야화첩>의 향유 요소를 중심으로 -

송화*, 박기수**

국문초록

본고는 전문 플랫폼을 중심으로 위상이 높아진 BL(Boys' Love) 웹툰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드라마 <시맨틱 에러>의 성공으로 BL 웹툰의 스토리텔링과 IP(Intellectual Property) 활용 전략의 연구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는 성애 묘사 외에 복합적인 BL의 향유 요소가 있으며 그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야화첩>은 BL로서는 드물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뛰어난 작화와 노골적이고 진한 성애 묘사로 연재 초부터 화제를 불러 일으켜 BL 향유자뿐만 아니라 BL이라는 장르를 모르던 이들에게도 그 존재를 알렸다. 이에 본고에서는 <야화첩>이 어떻게 BL 웹툰으로서의 장르적 특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기존 BL 웹툰과 차별화함으로써 대중성을 획득했는지, 스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했다. <야화첩>의 주요 스토리텔링 전략은 서사와 연동된 원색적이고도 강렬한 성애 묘사의 다양화와 전형성과 극단성의 이율배반적 캐릭터성이다. 서사적인 면에서 <야화첩>은 강한 성애 묘사를 전면화하면서도 성애와 탐미를 강조하는 BL과 추격과 긴장이 고조되는 스텝이라는 이질적인 성격의 두 서사를 결합하고, 두 캐릭터의 감정 변화에 따라 성애 묘사를 다양화했다. 캐릭터성 면에서는 느슨한 삼각구도를 형성하는 연모의 장과 연계된 권력의 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새롭고 강력한 캐릭터들의 등장에 맞서 어떠한 장벽도 극복하고야 마는 BL의 전형적인 캐릭터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함으로써 몰입을 강화한 것이다. IP 확장 가능성을 지닌 원천콘텐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야화첩>뿐만 아니라 장르적 특성을 반영하는 BL 웹툰의 스토리텔링 전략 탐색은 앞으로도 꾸준히 필요한 작업이다.

주제어: BL, BL 웹툰, 시대물, 성애 묘사, 스토리텔링 전략

* 제1저자,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Hanyang University, Dept. of Culture Contents, Ph.D. Student)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ERICA 문화콘텐츠학과 교수(Hanyang University ERICA, Dept. of Culture Contents, Professor)

I. 서론

본고는 최근 전문 플랫폼을 중심으로 위상이 높아진 BL(Boys' Love) 웹툰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 웹툰산업 매출액은 약 1조 5,680억 원으로, 전년도(1조 538억 원) 대비 48.6%, 웹툰산업 실태조사가 시작된 2017년(3,799억 원) 대비 약 4.1배 증가하며 매년 급성장 중이다.¹⁾ 웹툰이 콘텐츠산업의 주요 분야로 자리매김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웹툰이 포진, 다종다양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즐겨 보는 웹툰 장르로 BL/GL을 꼽은 응답자는 4.6%지만(중복 응답), 여성의 경우 7.5%로 남성(2.0%)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는데, 이들은 웹툰 이용자 중 유료 결제 경험이 가장 많은(57.0%) 연령대다.²⁾ 이들 연령대에서 BL을 즐기는 이들 역시 기꺼이 콘텐츠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웹툰 플랫폼 입장에서는 BL이 향유자의 지지를 받는 주요 수입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BL은 웹툰업체들이 기획/제작/유통하는 장르(1+2+3 순위 기준) 가운데 로맨스판타지, 액션·무협, 순정·로맨스, 판타지·SF에 이어 매출과 수익성이 좋은 장르로 꼽힌다.³⁾ 주목할 점은 웹툰 이용자들이 즐겨 보는 장르(1+2+3 순위 기준)로 코믹·개그, 액션, 판타지 순으로 꼽은 것에 비해⁴⁾ 수익을 창출하는 장르는 별개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BL 웹툰의 스토리텔링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BL이 '작품 자체의 완결성보다는 캐릭터간의 탐미적인 연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여성의 시각에서 그려지는 남성간의 포르노'⁵⁾라는 폄하와 대중적인 장르가 아니라는 편견

1)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99쪽.

2) 전체 웹툰 유료 결제 경험자는 45.7%로, 이 가운데 10-30대는 유료 결제 50%를 상회(49.9-57.0%)하는 그룹이다. (위의 책, 99쪽.)

3) 위의 책, 32-33쪽.

4)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만화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88쪽.

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드라마 <시맨틱 에러>가 ‘BL이 대세’⁶⁾라고 할 만큼 신드롬을 일으키고 대중에게도 BL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면서 그 스토리텔링과 IP(Intellectual Property) 활용 전략의 연구 필요성이 대두됐다. <시맨틱 에러>는 12세 이상 관람가의 드라마 수준에 맞게 성애 묘사를 줄이면서도 기존 향유자들이 웹소설과 웹툰에서 인지해온 BL 정체성을 유지하고 즐길거리를 제공해 드라마 전환에 성공했다.⁷⁾ 이는 포르노에 비견되는 강한 성애 묘사 외에 보다 복합적인 BL의 향유 요소가 있으며 그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BL에 관한 연구는 ‘남성끼리의 사랑을 보는 여성’이라는 향유자 분석과 ‘남성끼리의 사랑’이라는 콘텐츠 정체성을 둘러싼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정작 콘텐츠 산업의 전면에 부상한 BL의 개별 콘텐츠 분석이나 전환을 위한 원천콘텐츠로서 IP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탐색은 이제 막 시작됐다.

김건형은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한국 게이 로맨스 영화 중 2020년 이후 7편을 분석, 청년기 남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남성 젠더의 갱신과 성장을 지향하면서도 연인의 가족 외 가부장적 조직 문화와 연관된 직업, 공간은 회피함으로써 남성 간 돌봄을 채택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이성애 가족주의적 남성 젠더와 대별되는 ‘게이 로맨스’라는 관점에서 서사 구조를 탐색했다는 의미가 있다.⁸⁾

장민지는 BL 드라마 <시맨틱 에러>를 분석, 텍스트 내부의 서사와 관계성 외에 두 캐릭터의 가상 SNS 계정을 통해 이용자 몰입을 추구해나가면서 메이킹 필름, 블로그, 비하인드 등을 공개해 이들의 이중 관계성

5) 두고보자, 『만화세계정복』, 길찾기, 2004, 233쪽.

6) 「시맨틱 에러」는 시작일 뿐-대세 된 BL 콘텐츠, 『스타뉴스』, 2022년 04월 30일자.

7) 송화·박기수, 「BL 웹소설의 드라마 전환 전략 연구-왓챠 드라마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70호, 인문콘텐츠학회, 2023, 109-131쪽.

8) 김건형, 「한국 게이 로맨스 장르의 서사구조-남성 청년의 돌봄 친밀성과 게이라는 남성 젠더의 창안」, 『대중서사연구』, 제28권(제3호), 대중서사학회, 2022, 95-137쪽.

(double relationship)에서 발생하는 서사를 서브텍스트로 활용, 대중성을 획득했다고 봤다. 이러한 서사적 확장은 향유자들이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 서브텍스트의 생산에 적극 가담하게 해 BL 콘텐츠의 확산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이다.⁹⁾

이승희 역시 드라마 〈시맨틱 에러〉를 분석, 이미 웹소설, 웹툰, 애니메이션 등 슈퍼 IP였던 〈시맨틱 에러〉 원작 팬과 BL 입문자까지 확대된 콘텐츠 향유층을 기반으로 드라마 외의 IP들과 다양한 변주를 통해 시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을 이룬 대중화 전략을 고찰하고, 남녀관계의 권력구조를 반영했던 정형 BL¹⁰⁾의 클리셰 대신 평등한 젠더 감수성을 반영,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은 K-BL의 가능성을 전망했다.¹¹⁾

BL 드라마의 콘텐츠 분석이 〈시맨틱 에러〉에 집중된 이유는 BL의 거점콘텐츠¹²⁾화 전략이 최근에야 시작되어 그만큼 성공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웹소설,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전환 전략에 있어 IP 확장 가능성을 지닌 원천콘텐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더 많은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BL이 지닌 장르로서의 특성을 반영하는 스

9) 장민지, 「서브텍스트 할성화를 통한 BL(Boys' Love) 콘텐츠 대중화 전략: 왓차 오리지널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2권(제11호), 한국콘텐츠학회, 2022, 713-723쪽.

10) 미조구치 아키코가 1. 왜 남성 캐릭터들이 동성 간의 연애에 있어서 자신이 이성애자라고 주장하는가? 2. 왜 그들은 섹스 외에도 공수로 나뉘어 고정화한 남녀의 젠더 역할을 연기하는가? 3. 왜 언제나 애널 섹스를 하는가? 4. 왜 이렇게 많은 강간이 일어나는가? 라는 네 가지 질문을 90년대 BL 작품의 대부분이 채용하고 있는 정형으로 꼽으면서 제시한 용어로, 이성애 규범적이며 호모포비아, 여성혐오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연애를 드라마틱하게 드러내 '영원한 사랑의 신화=궁극적 커플 신화' 환상을 위한 소도구로서 동성애를 이용하는 점을 비판하고 2000년대 이후 변화한 BL과의 대조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정형 BL이 합의하고 있는 BL의 특성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이를 활용하기로 한다. (미조구치 아키코, 〈BL 進化論〉, 김효진 역, 『BL 진화론』, 이미지프레임, 2018, 56-71쪽.)

11) 이승희, 「OTT 'BL(Boys' Love) 콘텐츠'의 대중화 전략 및 수용 특징 연구: 왓차 오리지널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지식과 교양』, 제12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3, 43-75쪽.

12) 박기수,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구조와 전략』, 논형, 2005, 86쪽.

토리텔링 전략의 탐색은 반드시 해야 할 정지작업이다.

본고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야화첩〉은 변덕 작가의 작품으로 2019년 5월 14일 레진코믹스에서 연재를 시작, 2023년 11월 11일 총 129화 4부작으로 완결됐다. 레진코믹스는 처음부터 ‘어른들을 위한 웹툰’을 내세우며 무료 서비스로 인식되던 웹툰의 유료화를 이끌었으며 본격적으로 BL 웹툰을 유통한 플랫폼으로서 〈야화첩〉은 그 전면에 섰던 콘텐츠다. BL 웹툰으로서는 드물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뛰어난 작화와 노골적이고 진한 성애 묘사로 연재 초부터 화제를 불러 일으켜 BL 향유자뿐만 아니라 BL이라는 장르를 모르던 이들에게도 그 존재를 알렸다. 본고에서는 〈야화첩〉이 어떻게 BL 웹툰으로서의 장르적 특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기존 BL 웹툰과 차별화함으로써 대중성을 획득했는지, 스토리텔링 전략 분석을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II. BL 웹툰의 장르적 특성

그동안 소수자의 서브컬처로 인식되었던 BL은 웹툰 플랫폼을 기반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르가 됐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다양한 취향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팬덤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향유층을 창출하고 있다. 향유층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장르로의 전환(adaptation)을 요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IP를 확장함으로써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이 성공하려면 BL이 장르물로서 갖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다양화하는 변주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주목해야 한다.

박인하는 창작과 수용에 관여하는 ‘관습의 형성’을 기준으로 장르만화의 정착을 파악했다. 유사한 경향의 만화군이 장르만화로 자리매김하려면 내러티브 구조, 캐릭터, 칸 나누기 같은 형식적인 요소부터 주제와 소재 같은 내용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작품 전반에 일정한 특징을 공유하는 작품들이 많아져, 독자 역시 이러한 작품의 특징을 규범적 유사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¹³⁾ 이 기준에 의하면 BL 역시 장르만화로 규범 짓게 하는 구성 요소로 형식적인 요소와 내용적인 요소를 추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규범은 생산자와 향유자 사이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생산자는 이를 기본적인 문법으로 삼아 창작하고, 향유자는 텍스트에 쉽게 몰입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BL 웹툰을 장르물로 규정하게 하는 몇 가지 특성들을 추려볼 수 있다.

- ① 남성 간의 연애를 그린다.
- ② 공수관계¹⁴⁾는 가변적이다.
- ③ 로맨스를 기조로 하며 해피엔드를 지향한다.
- ④ 성애 묘사의 수위는 선택적이되 배제하지 않는다.
- ⑤ 웹툰 전문 플랫폼을 통해 유통, 향유된다.

①은 어떤 콘텐츠가 BL이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전제조건으로, 텍스트 전체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다만 동성애 자체에 대한 도덕적, 사회적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를 주요 서사로 한다. ②는 캐릭터성으로, 다수의 BL 향유자들이 매우 중시하는 요소인데, 선호하는 공수관계에 따라 향유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수관계가 가변적이라는 것은 BL에서 말하는 리버스(reverse)¹⁵⁾가 아니라 주 캐릭터의 어느 쪽이든 공이나 수가 될 수 있다

13) 박인하, 『누가 캔디를 모함했나』, 살림, 2000, 70쪽.

14) BL 커플링에서 성관계 시 성기를 삽입하는 쪽을 공(攻, め, 세메), 삽입당하는 쪽을 수(受, け, 우케)로 칭한다. 대개 외형이나 성격 등에서 남성성이 강한 쪽을 공, 여성성이 강한 쪽을 수로 표현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이러한 예측을 뒤집는 공수 설정도 종종 등장하고 있다. 캐릭터 성격과 성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공, ○○수 등을 키워드로 표시하거나 공과 수 사이에 ×를 넣어 공×수로 커플링을 확인할 수 있다.

15) 공수 커플링을 뒤집는 것으로 특히 성관계에서 공이 수가 되거나 수가 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적인 문란함이라기보다 공수 어느 한쪽에 감정을 이입하면서 지켜보던 향유자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는 면에서 반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는 의미다. 키나 외모의 특성으로 유추할 수 있든,¹⁶⁾ 고정관념을 뒤집든 규칙이나 제한 없이 어떠한 공수관계도 허용한다는 의미에서의 가변성이다. ③은 ‘어떠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애절한 사랑 이야기’¹⁷⁾라는 로맨스 장르의 정신이 남성끼리의 사랑이라는 장벽(으로 인식되는 난관)을 넘어야 하는 BL에도 통용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단순한 원칙은 수많은 재매개를 거치면서도 유지되며 메인플롯에 다양한 설정이나 소재를 가미함으로써 신선함을 주고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하기에도 용이하다. 또한 로맨스와 BL은 공통적으로 순애를 전제로 한 해피엔드를 지향하며 해피엔드가 아닌 경우조차도 BL 향유자들은 그들이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만나 다른 결말을 가질 수 있다는 상상으로 텍스트를 확장하며 자기만의 독해를 즐긴다. ④는 표현전략으로, BL 웹툰의 이용 등급에 따라 수위는 달라도 두 캐릭터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성애 묘사는 반드시 포함된다는 의미다. 앞의 특성들이 BL 공통이라면, ⑤는 BL 웹툰의 당연한 경로로, 정기연재와 과금제, 댓글 등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웹툰 플랫폼에서의 유통은 BL이 콘텐츠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며 과거의 BL 콘텐츠들과 차별화된 요소다. 다시 말하면 ①-④는 텍스트 자체의 특성인 반면 ⑤의 플랫폼은 BL 웹툰의 정체성을 결정짓고 텍스트와 향유자를 연결하는 통로로 작용한다.

이러한 구성 요소와 연관성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BL 웹툰의 장르적 특성을 ‘남성 간의 연애를 다루며 여성을 주 향유자로 하고, 성애 묘사를 포함한 로맨스 서사를 따르며 유료 웹툰 전문 플랫폼을 통해 유통, 향유

16) 일반적으로 외형 상 공은 골격이 강건한 얼굴형에 장신, 근육질, 흑발인 반면 수는 선이 가는 얼굴형에 중간 정도 키 또는 작은 편, 연한 머리색과 하얀 피부를 가진 경우가 많으며 공은 훨씬 탁월한 경제적 능력이나 스펙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수를 보호하거나 소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미조구치 아키코는 이러한 공수관계를 90년대 정형 BL의 특성으로 간주하고, 2000년대 들어 이러한 정형을 깨뜨리는 공수관계가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미조구치 아키코, 앞의 책, 71-74쪽.)

17) 이정원, 『웹소설 탐구』, 지식의날개, 2020, 45쪽.

되는 콘텐츠'로 정의한다. '남성 간의 연애-‘보이즈’의 ‘러브’를 중심으로 한 여성을 위한 이야기군'¹⁸⁾이라는 정의에 서사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하고(③) 웹툰이라는 플랫폼을 추가(⑤), 범주를 한정된 것으로 캐릭터성(②)을 포함한 로맨스와 성애 묘사(④)는 BL 웹툰의 주된 소구 요소이자 변용 가능한 것들이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야화첩>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변형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장르물로서 <야화첩>의 차별화된 스토리텔링 전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I. 서사성의 강화와 성애 묘사의 다양화

<야화첩>의 첫 번째 스토리텔링 전략은 서사와 연동된 원색적이고도 강렬한 성애 묘사의 다양화다. 춘화가 소재인 만큼 연재 초기부터 화제가 됐던, 직접적이고 적나라하게 성행위를 묘사한 '야하고 야하고 또 야한' 작화가 주된 소구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2-3화에 걸쳐 이어지는 성행위 장면은 연재 초반 <야화첩>의 인지도를 높여 향유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큰 몫을 했다.

BL에서 '씬(scene)¹⁹⁾이라고 하는 성애 묘사는, 간접적으로 표현되거나 최대 키스로 끝나는 소프트 BL부터 강간, 윤간, 불륜, 매춘, 근친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나 능욕, 구속, 세뇌, SM 플레이 등 비일상적인 범주까지 포함하는 하드 BL에 이르기까지 BL이라면 빠질 수 없는 요소다. 물론 묘사에 대한 규제는 있다.²⁰⁾ BL에 주로 해당되는 선정성

18) 미조구치 아키코, 앞의 책, 20쪽.

19) 영화의 기본 단위인 '신(scene)'과 같은 단어지만 BL에서는 보통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씬'이라고 표기하며 성행위 장면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성관계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암시하는 분위기만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정도에 따라 소프트 BL과 하드 BL로 나눈다. 본고에서는 BL 웹툰 향유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씬'을 혼용하기로 한다.

20) 2019년부터 도입된 웹툰 연령등급은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약물, 사행성, 차별, 모방위험의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전체, 12세 이상, 15세 이상, 18세 이상 이용가의 4단

항목의 경우,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 선정성의 요소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을 18세 이상 이용가로 정하고 있다.²¹⁾

〈야화첩〉은 18세 이상 이용가 하드 BL로, 향유자들의 표현대로라면 ‘씬이 없으면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을’ 만큼 짙은 빈도와 높은 수위의 씬이 등장한다. 〈야화첩〉은 조선시대라는 배경에서 봤을 때 접점이 없는 두 캐릭터, 양반가 자제이자 남색가 윤승호와 기방에 버려져 자란 춘화가 백나검이 어떻게 만나 사랑에 이르고 어떤 고난을 겪으며 마침내 행복에 이르는가 하는 이야기이고, 이들의 감정이 달라질 때마다 씬이 등장해 서사를 추동한다.

〈표 1〉은 〈야화첩〉의 주요 서사와 연동된 씬, 그리고 이러한 씬에서 드러난 BL적 성격을 표시한 것이다. 15개의 씬에서 윤승호와 백나검은 착각(19-21화)→ 강제적인 관계(25-28화, 31-32화)→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의 혼란(36-40화, 42-43화, 45-46화)→ 윤승호 입장에서 연모 감정의 자각(48-50화, 58-59화)→ 오해로 인한 갈등(62-64화)→ 갈등 해소 후 서로에 대한 연모 감정 확인(70-73화, 79-82화, 88-91화, 94-96화)→ 마지막 위기(103화)→ 연모 감정의 재확인(112-114화) 등의 변화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BL적 성격은 8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윤승호와 백나검의 첫 관계는 상호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강간 모티브를 반영하지만 두 캐릭터의 애정 여부와 상관없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

계를 제안했다. 2019년 이전까지 웹툰 연령등급은 방송이나 영화, 게임물과 달리 전체관람가와 청소년유해물로 분류되는 19세 이상 이용가의 두 등급만 존재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 수준에 적합한 웹툰도 저연령 아동층에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보이콧 대상이 되기도 해 웹툰 유통시 기준에 맞는 적절한 연령등급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다양한 플랫폼에 매일 수많은 작품이 올라오는 웹툰의 특성을 고려해 창작자와 유통사 스스로 작품의 연령등급을 설정, 구독 가이드를 제시하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다. 한국만화가협회 웹툰자율규제위원회, <https://acw.or.kr/rank/?pIdx=rank1>(검색일 2023년 02월 27일).

21) 한국만화가협회, 『웹툰 자율규제 연령등급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78쪽.

〈표 1〉 〈야화첩〉 회차별 성애 장면과 서사 진행

시점	캐릭터의 감정	회차	내용	BL적 성격
I. 관계의 시작 (1부)	어긋난 만남	19-21	• 취한 상태에서 윤승호를 자신이 연모하는 정인현인 줄 알고 처음 성관계를 갖게 되는 백나겸	• 강간 모티브 - 공 주도의 강압적인 행위 전반
	충돌	25-28	• 정인현인 줄 알았다며 자신을 밀어내는 백나겸을 강제로 범하는 윤승호	- 수의 수동적이고 저항하는 모습
	감정의 혼란 (윤승호)	31-32	• 도망친 줄 알았던 백나겸이 정인현과 외출했던 것을 알고 분노하는 윤승호	
	감정의 혼란 (백나겸)	36-40	• 윤승호에게 반응하는 자신의 몸에 당황하면서 정인현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백나겸	• 정형 BL의 이성에 모방 - 여성성을 체현하는 수 캐릭터
	상처 (백나겸)	42-43	• 자신을 창기 취급하는 정인현 때문에 상처 받고 윤승호에게 먼저 키스하며 안아달라고 하는 백나겸	
II. 감정의 변화 (2부)	감정의 변화 (백나겸)	45-46	• 정인현이 과거 보러 떠나고 도망가려다 갈 곳이 없음을 깨닫고 윤승호와와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백나겸	• 로맨스 서사 - 상대방의 유일무이성을 인정하는 관계로 발전
	감정의 변화 (윤승호)	48-50	• 백나겸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만 자신의 일방적인 감정이라 여기는 윤승호	
	감정의 고조 (윤승호)	58-59	• 고분고분해진 백나겸을 추궁하는 윤승호에게 그저 몸이 원하는 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답하는 백나겸	
	갈등	62-64	• 납치당했던 백나겸이 도망치려던 것으로 오해하고 강제로 집요하게 관계를 갖는 윤승호	• 납치 모티브 - BL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클리셰
	감정의 절정	70-73	• 자신의 마음이 윤승호를 향하고 있음을 깨달은 백나겸과 백나겸의 반응을 배려하는 윤승호	• 탐미적 성애 묘사 - 감정 교류 + 노골적인 대사
III. 감정의 확인 (3부)	마음이 통합	79-82	• 윤승호도 자신과 같은 마음임을 알지만 두려운 백나겸과 아버지의 간섭에 분노하는 윤승호	• 해피엔드 지향 - 사랑의 방해 요소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커플
	확신	89-91	• 납색 때문에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윤승호의 과거를 알게 되고 끝까지 곁에 있을 것을 약속하는 백나겸	
	감정의 확인	94-96	• 정인현과의 기억을 얘기하며 이제는 윤승호를 연모한다고 고백하는 백나겸	
IV. 감정의 증폭 (4부)	감정의 증폭	103	• 납치당해 강제로 춘약 먹고 괴로워하는 백나겸을 간호하는 윤승호	• 탐미의 탈색 • 순애의 강화
	마무리	112-114	•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윤승호와 백나겸	• 궁극적 커플 신화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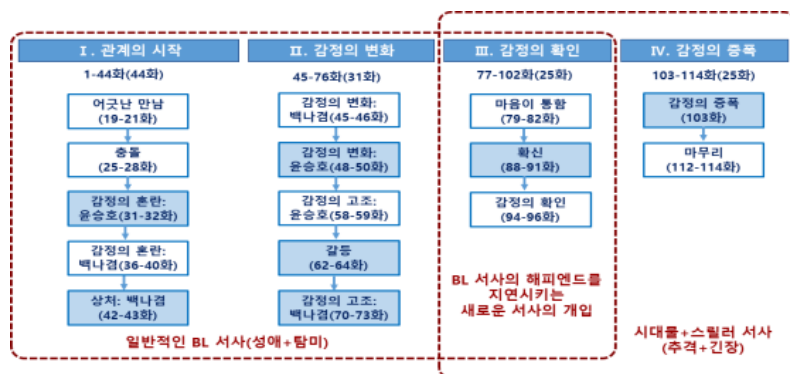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었기에²²⁾ 적대적인 관계는 곧바로 해소되지 않는다(19-21화, 25-28화, 31-32화). 보통 BL에서 강간 이후 곧 사랑에 빠지면서 관계에 대한 탐색보다 성애 묘사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 <야화첩>에서는 몇 번의 성애 장면이 추가되는 만큼 관계의 발전을 수궁할 만한 시간을 더 안배한 셈이다. 따라서 이들이 사랑을 깨닫기까지의 성애 묘사는 윤승호의 강압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백나겸의 수동적이고 저항하는 모습이 대비된다. 이후 심경의 변화를 겪고 윤승호에게 안아달라고 조르는 등 삽입을 받아들이는 백나겸의 행위는 달라진 감정을 보여주며 그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위치를 대표함으로써²³⁾ 공수관계가 결국 이성애를 모방한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36-40화, 42-43화). 또한 윤승호는 육체관계에 마음이 따를 필요는 없다는 백나겸의 말에 상처받았음을 깨닫고 백나겸에 대한 사랑을 자각한다. 이 단계에서 두 캐릭터는 상대에 대한 사랑을 느끼면서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로맨스 서사에서 상대방의 유일무이성을 인정하면서도 감정을 숨기고 줄타기를 하는 단계와도 유사하다(45-46화, 48-50화, 58-59화). 숨겨진 감정은 어떤 계기를 통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데, BL에서 흔히 쓰이는 클리셰는 납치 모티브다. 납치됐던 백나겸이 도망가려던 것으로 오해한 윤승호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면서(62-64화) 두 캐릭터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 두 캐릭터가 사랑을 확인하는 부분의 성애 묘사는 직설적이지만 백나겸을 배려하거나 호칭으로 불리는 등 윤승호의 감정을 드러내는 대사와 감정이 더해져 탐미적인 분위기로 절정을 강조한다(70-73

22) 정형 BL에서 강간 모티브는 대개 수의 매력을 증명하거나 수에 대한 공의 과도한 애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수도 공의 사랑을 인정하고 용서하지만 <야화첩>에서는 정인현에 대한 백나겸의 감정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쉽게 사랑의 감정으로 변모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23) 수의 이상적인 외모는 남성의 육체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독자가 남성성을 느끼지 않게끔 무력화된 모습으로 묘사된다. 여성 독자가 수에만 감정 이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자가 공에 이입한다 하더라도, 수는 권력의 대상으로 존재하려면 강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BL 창작에서 수는 여성의 위치를 대표한다. (이미호·프모리, 『웹소설 작가를 위한 장르 가이드9 보이즈 러브』, 북바이북, 2017, 86-87쪽.)

화). 해피엔드를 향해가던 이들의 사랑은 제3자의 개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노골적인 성애 묘사와 대비되어 불안을 더한다(79-82화, 88-91화, 94-96화). 결국 또 다시 납치 후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 없이 윤승호의 순애만을 강조함으로써 이전과 달라진 캐릭터성을 확실히 부각시키고(103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면서 궁극적 커플 신화를 완성한다(112-114화). 이처럼 <야화첩>의 서사 진행에서 찾을 수 있는 BL 적 성격들이 정형 BL의 설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도 향유자들에게는 익숙한 소구 요소들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야화첩> 서사 구조와 성애 묘사의 다양화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은 <야화첩>의 서사 구조와 윤승호와 백나점의 감정 변화에 따른 성애 묘사를 정리한 것이다. 특이점은 I부에서 IV부로 진행될수록 씬의 분량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전반부(I, II부)에서 76화 중 40화로 절반 이상에 이르던 성애 묘사가 후반부(III, IV부)에서는 51화 중 15화로 확연히 줄어들었고 IV부는 앞부분과 비교하면 성애 장면이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격렬하고 노골적인 묘사와 감정을

확인하려는 대화가 어우러지면서 씬 하나의 강도는 더 세진다.²⁴⁾ 진하게 표시된 씬들은 다른 서사의 개입 없이 온전히 성애 장면만으로 소구하는 회차들로, 동일한 성행위임에도 감정이 개입돼 끊어짐 없이 집중적으로 씬을 묘사함으로써 두 캐릭터의 변화상을 보여준다. 단순한 성적 자극이 아니라 캐릭터 간의 감정과 연동해 다양한 성애 묘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I, II부에서는 초반 설정을 제시하고 스토리를 전개하기 위한 성애 묘사로서 다른 사건과 교차하거나 시차를 두는 등 성행위를 분절적으로 보여주며 성행위 자체가 연모가 아닌 분노와 저항의 표현이었다. 반면 III, IV부에서는 이들을 방해하는 주변 상황이 드러남으로써 이와 맞서는 연모의 감정이 상승해 성관계뿐만 아니라 성관계 전후 상황까지 길고 상세하게 묘사하는 특성을 드러냈다.

씬의 배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야화첩〉 전반부와 후반부 서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반부는 윤승호와 백나겸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하는 메인플롯이라 할 수 있다. 춘화를 그리라며 백나겸을 강제로 집에 머무르게 하는 윤승호의 집착과 분노, 그리고 더 이상 춘화를 그리지 않는다는 백나겸의 거부 등이 연모의 감정으로 변해가는 과정인 만큼 감정의 진폭이 크고 이를 표현하는 성애 장면 역시 자주 등장한다. 특히 II부의 마무리이자 두 캐릭터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씬(70-73화)에서는 윤승호가 이전과 달리 강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백나겸의 감정을 배려하고 반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서로에 대한 호칭을 바꾸거나 백나겸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여러 대사들을 함께 배치했다. 이 씬을 기점으로 두 캐릭터의 사랑이 완결됨으로써 I, II부는 탐미적인 성애 묘사가 주도하는 일반적인 BL의 서사를

24) 왜 고분고분해졌냐는 윤승호의 질문에 백나겸이 자신도 성관계가 기본 좋아졌음을 고백하거나(감정의 변화-49화) 살을 맞대는데 마음까지는 필요 없다는 말로 윤승호가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거나(갈등-63화) 무섭게 굴지 않을 테니 밀어내지만 말라거나(감정의 고조-70화) 수음할 때 서로를 생각했음을 고백하는(감정의 확산-90화) 회차 등은 강도 높은 성관계 묘사와 두 캐릭터의 대화가 어우러져 전체 씬의 분량을 확보하면서 전반부의 행위만으로 이어지는 씬과 차별화한다.

따르고 있다.

반면 후반부는 윤승호의 집안 내력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서브플롯이다. 메인플롯과 서브플롯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야화첩〉의 경우 전반부에서는 서브플롯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양반집 자제인 윤승호가 왜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한양에서 쫓겨나 남색가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증을 갖게 하고 후반부에야 그 이유가 밝혀지면서 서브플롯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윤승호의 약점이라 여기는 백나점을 이용해²⁵⁾ 뜻을 이루려는 세력이 등장하는 등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진다. 즉 성애 묘사가 등장할 여지가 없고 실제로 성애 장면이 줄어들어 윤승호와 백나점의 사랑이 얼마나 큰 장애를 이겨내고 이루어지는지를 부연하기 위한 서사다. 그 결과 IV부에서는 성애 묘사가 거의 없이 사건 위주로 진행되는데, 숨겨진 통문을 찾으려는 세력과 윤승호 사이에 추격과 긴장이 더해져 BL 서사가 약화되면서 스릴러 서사의 시대물로 변모한다. 스릴러에서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호기심과 위기의 순간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해소되는가 하는 긴박감이 서사를 추동한다. 또한 추리물과 달리 잔혹한 폭력, 천박한 범죄, 인물들의 부도덕성 등이 핵심 요소로 등장한다.²⁶⁾ 〈야화첩〉 후반부는 윤승호의 과거로부터 이어진 현재의 사건들이 범죄 양상의 폭력과 함께 벌어지며 통문과 관련된 이들의 부도덕성이 윤승호와 백나점의 사랑을 방해한다는 면에서 전반부의 BL 서사와 대비되는 스릴러 서사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두 캐릭터는 서로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게 되는데, 성애 묘사 역시 자신 때문에 고통 받는 백나점에 대한 윤승호의 괴로움(103화)과 다가오는 비극을 모른 채 절정에 달한 연모의 감정(112-114화)을 표현한다. 앞서

25) 백나점은 BL에서 흔히 #굴림수라고 하는 설정으로 납치, 감금 등 자신이 좋아하는 공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는 수의 포지션을 보여준다. 이 때 납치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수가 아니라 공으로, 공은 자신으로 인해 고초를 겪는 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결과적으로 둘의 감정이 한층 공고해지는 설정이다.

26) 박진, 「주류문학으로 수용된 스릴러 서사의 양상과 의미」, 『한국언어문화』, 제49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215-216쪽.

이들의 감정 변화가 충분히 설명됐고 이제는 감정이 일치한다는 게 증명됐으므로 향유자들은 새로운 서사 안에서 BL 서사의 독해 방식을 유지하며 지켜볼 수 있으며 이 스틸러 서사의 결말은 결국 두 캐릭터가 다시 만나는 해피엔드라는 BL 서사의 결말과 이어지면서 마무리된다. 향유자들의 반응은 IV부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성애 묘사가 포함된 외전에 대한 기대로 나타났고,²⁷⁾ 비정기적으로 연재되던 번외편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그 기대를 한층 높였다.²⁸⁾

후반부에서 주목할 것은 III부의 서사다. 분량에 비해 감정이 결여된 성애 묘사로 지루함을 유발할 수도 있었던 I, II부에 비해 감정이 고조된 II부의 마지막 씬(70-73화)과 연결되는 III부에서는 더 구체화되고 노골화된 씬이 이어진다. 백나겸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성관계 전에 의사를 묻는 윤승호(79-82화), 먼저 입을 맞추는 백나겸(88-91화), 스스로 먼저 성관계를 시도하는 백나겸(94-96화) 등 두 캐릭터의 감정선에 따라 성애 묘사를 다양화함으로써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해피엔드를 기대하게 한다. 이는 서사를 기반으로 하는 <야화첩>의 성애 묘사가 포르노 영화의 성행위와 차별화되어²⁹⁾ 단순 성애물에 머무르지 않도록 한다. 일반적인 BL 웹툰이라면 III부에

27) 레진코믹스에는 만화가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댓글 기능이 없지만 <야화첩> 완결 기념 이벤트로 보고 싶은 외전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레진코믹스, 야화첩 대망의 완결, (X(기존 트위터), https://www.lezhin.com/ko/page/end_paintings?utm_source=twitter&utm_medium=organic&utm_campaign=mkt_kr_end_paintings&utm_content=end_paintings&BSCPN=ADEF&BSPRG=TWIT&BSCCN1=org_231110_end_paintings(검색일 2024년 04월 11일).)

28) 본편이 소프트 BL인 경우에도 외전은 연령등급을 달리해 강한 씬을 포함하는 새로운 스토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분량상으로도 에필로그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시즌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수십 편에 이르는 외전을 선보이는 것은 웹소설이나 웹툰 형태의 BL이 향유층을 지속, 확장하는 일반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29) 일반적으로 남녀가 등장하는 포르노 영화에서 여성의 성적으로 절정에 오르는 것은 자신의 쾌락이 아니라 남성의 힘을 나타낸다. 즉 여성의 오르가슴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지배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성이 만들어낸 쾌락의 테크닉이 중요하며 감정적인 교류는 배제된다. (뤼스 이리가라이, (Ce Sexe Qui Est Pas Un), 이은민 역,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2000, 262-263쪽.)

서 종결해도 될 만큼 이들의 사랑은 완성된 단계지만 여기서 통문을 둘러싼 사건이 구체화하는 새로운 서사를 개입시켜 BL 서사의 해피엔드를 지연시키면서도 지속적으로 향유자들의 관심을 유지하는 전략이다.

〈야화첩〉은 윤승호와 백나점의 사랑이 이뤄지는 I, II부, 윤승호와 아버지의 갈등이 해결되는 III, IV부로 결을 달리하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윤승호가 백나점에게 다가가는 감정이 두드러진 I, II부에 비해 III부는 사랑을 자각하고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윤승호의 감정에 백나점이 호응하는 구조로, 감정 흐름의 주도권이 윤승호에서 백나점으로 바뀌면서 일체화된 상태에서 IV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다. 그 결과 IV부는 윤승호의 동성애와 아들이 갖고 있는 통문을 되찾으려는 아버지와 두 가지 갈등이 노골화되는 스릴러 서사가 두드러지는데도 불구하고 향유자들은 BL이라는 관점에서 감정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윤승호와 백나점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다. 이미 두 캐릭터의 감정이 쌍방 간에 일체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씬이 부각되던 I, II부에서 III부를 거쳐 IV부로 가면서 성애 묘사가 줄어들어도 서사가 뒷받침되어 향유자들을 유지하는 구조다. 이는 본질적으로 BL이 로맨스 서사를 지향하는 것과도 연관되는데, 등장인물의 감정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로맨스 소설의 성애 묘사는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두 캐릭터의 숨겨진 감정이나 특별한 상황을 드러내는 장치로 작용할 때 효과적이다.³⁰⁾ 〈야화첩〉은 강한 성애 묘사를 전면화하면서도 성애와 탐미를 강조하는 BL과 추격과 긴장이 고조되는 스릴러라는 이질적인 두 개의 서사를 결합하고, 윤승호와 백나점의 감정 변화에 따라 성애 묘사를 다양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전략을 모색한 것이다.

30) 포르노에서는 사적인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서로 모르는 채 성관계를 갖는 것이 핵심이지만 로맨스 소설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숨기고 있는 특별한 성격을 공동여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때문에 로맨스와 포르노에는 공존할 수 없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오기 오가스·사이 가담, *(A Billion Wicked Thoughts)*, 왕수민 역, 『포르노 보는 남자 로맨스 읽는 여자』, 웅진지식하우스, 2013, 197쪽.)

IV. 전형성과 극단성의 이율배반적 캐릭터성

〈야화첩〉의 두 번째 스토리텔링 전략은 전형성을 기반으로 극단화한 캐릭터의 이율배반적 구현이다. 공수관계에 있어 윤승호와 백나겸은 초반의 적대적인 관계를 넘어 결국 사랑에 이르는 관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BL에서는 새로울 것 없는 전형적인 캐릭터들이다. 따라서 서사 안에서 변화해가는 이들의 감정이 어떻게 얼마나 설득력을 갖는지가 향유의 관건인데, 〈야화첩〉은 향유자들에게 익숙한 캐릭터의 전형성에 극단화한 캐릭터성을 첨부함으로써 새로운 캐릭터성을 창출한다.

캐릭터에 집중하는 것은 BL의 오랜 관습이며 캐릭터는 향유자가 텍스트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다. 〈야화첩〉의 캐릭터 관련 키워드는 #광공, #집착공³¹⁾, #아방수³²⁾, #가난수, #꽃수(미인수)로, 키워드만 봐도 공이 수를 상당히 괴롭히고 수는 괴로워하다 결국 사랑에 빠지고 말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괴롭힘은 성적인 의미도 포함하는데, BL 웹툰의 표현 방식을 보면 과장된 공의 성기와 상대적으로 왜소한 수의 성기는 전형적이며, 〈야화첩〉도 예외는 아니다. 90년대 정형 BL과 달리 남성 간의 성행위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필요한 준비과정까지도 실질적으로 묘사하거나 뒤처리를 해주는 것이 사랑의 증거로 표현되는 등 변화한 양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는 여성의 신체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전형성을 유지한다. 남성의 성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쾌락기관으로 바뀌는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져, 남성 육체에 대한 상징적 변형과 지배

31) BL에서는 흔한 공의 유형으로, 수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공을 의미하며 그 정도가 심해 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 일상생활도 못하게 한다거나 성관계에서도 수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집요한 모습을 보인다. 최근에는 광공과 함께 ‘집착광공’이라는 표현도 흔히 볼 수 있다. 그 결과 서사적으로 #피폐물이라는 키워드가 추가되기도 하며 이러한 모습조차도 결국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용서된다는 점이 정형 BL의 특징이기도 하다.

32) 어리바리하고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귀엽고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수의 유형으로, 이런 특성 때문에 광공, 집착공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 ‘어병하다’를 귀엽게 표현한 데서 온 것으로 추측하며 ‘순진수’라고도 한다.

의 ‘쾌락’이 BL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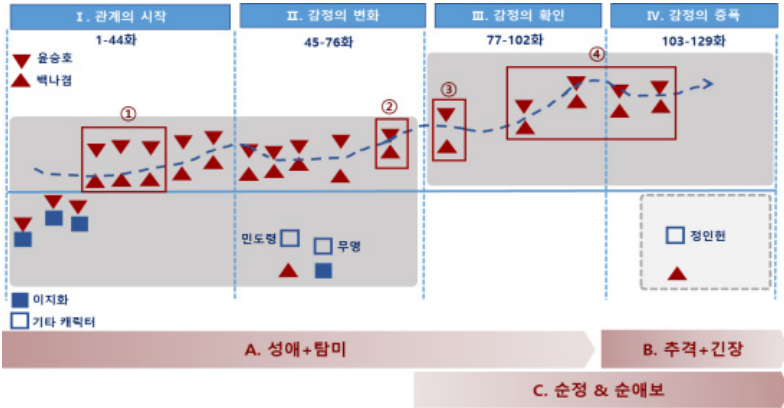
BL에서는 공수 두 캐릭터가 전체 서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캐릭터성이 더욱 중요하다. 〈야화첩〉 초반 윤승호는 사람 목숨도 아무렇지 않게 여길 만큼 거만하고 잔혹한 성정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동경한다. BL에서 수도 없이 반복돼온 이른바 ‘나쁜 남자’로서의 매력인데, 바람둥이, 결핍과 욕구로만 사는 남자, 폭력적인 남자, 사디스트 등 감정적 상처를 가진 남성에게 연민을 느끼고 회복시켜야 한다는 강한 자극을 준다.³⁴⁾ 윤승호를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백나겸과 여성 향유자들로, 텍스트 안팎에서 작동하는 감정이입이 그 변화를 수용한다. 향유자들은 이러한 ‘개망나니 남색가’가 백나겸과의 사랑에 모든 것을 거는 극단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상처입고 괴로워하는 순정남의 면모를 보이는 데 집중한다. “그래, 그 천것은 죄가 없지. 이걸 아무런 힘이 없는 네놈의 죄다. 네가 아무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그놈이 죽는 거야(126화)”라는 아버지 윤대감의 말에 윤승호는 백나겸을 살리기 위해 삶의 방식을 바꾼다. 최악의 순간이 해피엔드를 위한 복선으로 작용하는 서사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전형적인 #집착광공에서 #순정남으로의 급격한 변화는 윤승호 캐릭터의 다면적인 매력이 된다.

이에 비해 백나겸은 외형 자체도 큰 눈과 작은 체형, 자주 눈물을 흘리는 등 여성적으로 묘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목도리와 자명금, 화과자 등 윤승호가 선물하는 소품마저 이러한 여성성을 한층 더 강화한다. BL에서는 캐릭터 설명에 키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작가가 소개하는 두 캐릭터의 프로필은 윤승호 188cm, 백나겸 174cm로, 조선시대 기준에서 보면 둘 다 상당한 장신이다. 이는 이상적으로 보이는 키 차이를 반영한

33) 김효진, 「당사자됨’을 구성하기: BL, 환상, 욕망」, 연혜원 기획, 『퀴어돌로지』, 오월의봄, 2021, 148쪽.

34) 로만 마리아 코이들, (Scheißkerle), 홍이정 역, 『나쁜 남자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1, 92-96쪽.

것으로, 결국 캐릭터는 현재적 욕망의 대상이며 현재의 향유자들이 생각하는 이상형에 가까운 설정이므로 전형성을 지닌다. 가장 표면적인 차원에서 BL은 주 향유층인 이성애 여성의 연애 판타지를 표현하며 BL 웹툰은 이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는 면에서 그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



〈그림 2〉 〈야화첩〉 서사 진행과 캐릭터 간의 감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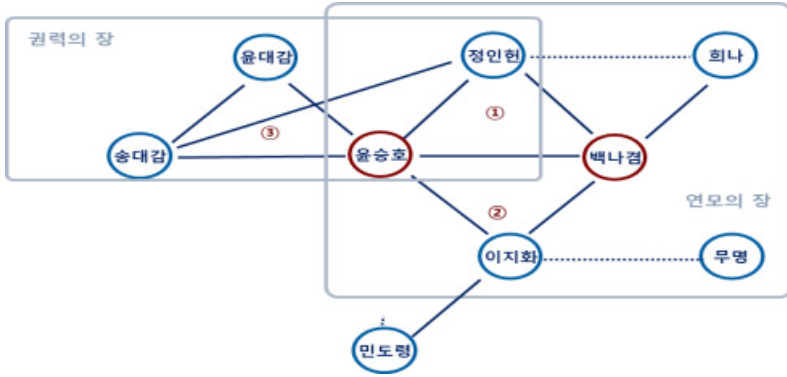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는 서사 진행에 따라 드러나는 캐릭터 간의 감정 변화를 표시한 것이다. I, II부가 씬을 위주로 하는 성애와 탐미 중심의 BL 서사(A)를 이루고 있다면 IV부는 성격이 다른 추격과 긴장의 스릴러 서사(C)로 전환됨으로써 오히려 3부에서부터 중첩돼온 순정과 순애보의 감정(B)을 강화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캐릭터 간의 감정 변화를 보면, I, II부에서 윤승호(▼)와 백나겸(▲)은 반목하고 갈등하다(①) 서로에 대한 연모의 감정을 확인하지만(②) 망설이던 백나겸(③)이 윤승호의 과거를 알고 비로소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되는데(④), 백나겸의 캐릭터성은 윤승호와의 성관계를 통해 방향성을 갖고 변화해간다. 성행위와 관련해서도 서툰 백나겸은 자신이 먼저 도발했음에도 수동적이며 처음이라는 두려움에 떨지

만, 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적극적으로 성애를 표현하고 대담해진다. 초반에는 윤승호가 관계를 주도했다면, 감정선이 달라지면서는 백나검을 중심으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성관계에서 변화하는 수의 모습은 둘만의 관계성이 가장 의미 있으며 그 안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궁극적으로 공의 사랑을 굳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에 다른 캐릭터들이 개입하면서 갈등이 일어난다. 윤승호의 오랜 친구이자 동성애 파트너인 이지화(■)와 백나검이 어려서부터 연모해온 정인현(□)은 각각 성애와 탐미의 구간(A)과 추격과 긴장의 구간(B)에서 갈등을 일으키지만 윤승호와 백나검의 사랑이 완결돼가는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은 점점 약화된다. 대다수의 BL에서 주변인물들이 개별 서사와 특화된 캐릭터성을 부여받지 못한 채 주인공의 사랑을 공고히 하는 도구적 역할에 머무르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들 또한 전형성을 보인다. <야화첩>에서 윤승호와 백나검의 캐릭터성이 BL의 전형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게 극단성을 부여하고 일반적인 BL 캐릭터와 변별성을 갖게 하는 것은 연적이 아니라 스틸러 서사(B)를 주도하는 캐릭터들이다. 다양한 강도의 악인으로 설정된 이들은 추격과 긴장을 유발하며 윤승호와 백나검은 이에 맞서 성애와 탐미(A)에 이어 쌓아온 순정과 순애보(C)를 강화해간다.

<그림 3>은 <야화첩>의 캐릭터 구도로, 윤승호와 백나검은 크게 세 개의 장(場)에서 다른 캐릭터와 관계를 맺고 있다. 먼저 BL 캐릭터로서 윤승호와 백나검은 백나검이 어린 시절부터 연모해온 정인현과(①), 윤승호의 과거를 아는 오랜 친구이자 동성애 파트너인 이지화와(②) 각각 삼각구도를 이루고, 윤승호가 가진 통문을 빼앗으려는 아버지 윤대감, 송대감과(③) 새로운 삼각구도를 이룬다. 각각의 장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①, ②는 I, II부의 중심 서사를 이루는 연모의 장, ③은 III부에서 시작돼 IV부에서 완결되는 권력의 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이점은 정인현이 두 개의 장에 걸쳐 있다는 점이다. 주변으로 이어져 있는 캐릭터는 적대자(민도령, 무명)나 조력자(희나) 역할을 하지만 확고한 캐릭터성을



〈그림 3〉 〈야화첩〉의 캐릭터 구조

출처: 저자 작성.

드러내거나 서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①은 백나겸을 차지하기 위해 정인현을 견제하는³⁵⁾ 윤승호의 행위가 주를 이루는 연모의 장이다. 역지로 춘화를 그리게 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처음에는 진지하지 못한 정복욕에서 비롯됐으나 정인현에 대한 백나겸의 마음을 깨달을수록 윤승호는 집착의 강도를 더해가면서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된다. I부의 서사가 이에 해당하며 두 주인공의 감정이 일치하지 않고 윤승호의 일방적인 공세이기에 백나겸의 저항이 이어지지만 정인현에게 상처받은 백나겸의 마음이 흔들리고 윤승호를 향하는 시점에서 마무리된다. 이 장에서는 정인현의 이중성이 두 캐릭터의 관계를 결정짓는데, 가난하고 선량한 선비처럼 보이던 그가 사실은 출세를 위해 백나겸의 연심조차 이용할 만큼 권력욕을 가진 위선적인 야심가라

35) 윤승호는 변변한 재산이나 인맥이 없어 관직에 오르기 어려운 정인현의 입신양명을 조건으로 백나겸을 곁에 두려고 한다. 실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 대다수는 관직이 없었고, 과거에 급제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급제한다 해도, 당색이나 문벌에 따라 고위직 진출에는 한계가 있어 대다수의 양반이 중앙으로 진출하는 대신 평생 유학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권내현, 「조선 후기 신분 변동론 그 이후」, 『조선시대사학보』 제105권, 조선시대사학회, 2023, 188-189쪽.)

는 캐릭터성을 드러내면서 윤승호와 백나겸의 관계도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

②는 정인현 대신 이지화가 새로운 삼각구도를 이루는 연모의 장이다. 오랫동안 윤승호를 연모해온 이지화가 백나겸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면서 오히려 윤승호와 백나겸이 가까워진다는 면에서 BL로서는 가장 전형적인 장으로, II부의 서사가 이에 해당한다. 정인현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이지화와와의 관계가 드러나 자연스럽게 ①과 ②의 장이 교차하는 대칭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문제는 이지화가 정인현과 달리 진심인 연적임에도,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장애물이 클수록 사랑의 성취가 커지는 연모의 장을 뒤흔들 만큼의 적극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이다. 그는 윤승호와 백나겸의 주변을 맴돌며 상황을 도모하려 하지만 백나겸에 맞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적대적 인물이 아닌 조력자 역할을 하고 향유자들에게도 동정 받는 유약한 사랑의 경쟁자라는 캐릭터에 머무른다. 이와 같이 BL에서 주도적인 서사를 이끌어야 할 연모의 장이 느슨한 삼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탓에, 권력의 장이 개입하면서 강력하고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해 특히 윤승호의 캐릭터성에 극단성을 부여한다.

③은 역모를 도모한 이들의 이름이 적힌 통문을 둘러싸고 윤승호와 아버지 윤대감, 그 친구인 송대감이 삼각구도를 형성하고 여기에 정인현이 가담하는 권력의 장으로 IV부가 이에 해당한다. 추격과 긴장의 스펀서 서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백나겸을 지키기 위해 극단으로 치닫는 윤승호의 캐릭터성 역시 본격화하고 사건 해결과 함께 III부에서부터 드러난 윤승호의 순정과 순애보도 결실을 맺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③에서 윤대감과 송대감은 공통으로 윤승호와 대립하지만 그 강도에 차이가 있고, 정인현이 재등장하여 새로운 캐릭터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 권력의 장에서 표면적으로 윤승호의 일차적인 대립인물은 아버지 윤대감이다. 똑똑하고 믿었던 큰아들이 동성애자에다 포악한 성정을 가지고 있으며 통문을 숨기고 있다는 것 때문에 대립하지만, 실제로는 한양을 떠

나 자기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면서 동생을 보내 동정을 살피거나 자객에게 급소를 피해 찌르게 하는 등 갈등하는 부정의 캐릭터성을 내재하고 있다. 백나검을 희생양 삼아 윤승호를 살리려 하는 것이 가장 큰 대립각으로, 온전히 주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장에서 윤승호의 가장 강력한 대립인물은 송대감이다. 현재 시점에서 통문을 되찾기 위해 윤대감과 손을 잡고 있지만 윤승호를 죽이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성애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기방에 데려가 성적 학대를 일삼는 등 트라우마를 심어준 장본인이자, 만약의 근원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윤승호와 가장 강력하게 맞서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IV부에서 뒤늦게 등장해 서사의 축적 없이 행위의 나열만 이어지고 왜 이렇게 윤승호에게 적대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캐릭터성이 충분히 살아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면에서 흥미로운 캐릭터는 정인현이다. I부에서 어린 시절부터 봐온 백나검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으나 속으로는 무시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었고, 윤승호의 등장으로 자신의 역할을 잃으면서 IV부에서는 온전히 권력을 추구하는 캐릭터성을 숨기지 않는다. 이미 연모의 장(①)에서 윤승호, 백나검과 삼각구도를 이뤘지만 정인현은 이들에 대한 질투 때문에 권력의 장에 온 것이 아니라 본래 권력이라는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그의 본성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를 혐오함에도 백나검에게 거짓 고백을 하는 등 관직을 빌미로 자신을 끌어들이는 송대감과 윤승호를 골탕 먹이려는 민도령 일당에게 수동적으로 휘둘리면서 캐릭터성을 발휘해야 할 권력의 장에서 오히려 소모적으로 소비되고 만다. 두 주인공을 제외하고는 연모의 장과 권력의 장을 오가는 유일한 캐릭터로서 위선적인 연적과 진심의 권력 추구형 야심가라는 두 개의 캐릭터성이 신분사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멸하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화첩〉은 BL 서사에 스텔러 서사라는 이질적인 스토리 요소를 가미해 순정과 순애보라는 BL의 정서를 완성한다. 그러나 캐릭터 구도로 봤

을 때 윤승호의 전형적인 캐릭터에 극단성을 부여하는 것은 연모의 장이 아니라 권력의 장으로, 통문을 둘러싼 사건들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윤승호는 송대감과 정인현 등 자신과 대립했던 인물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극단성을 보인다. 연모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 극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다. 다양한 성애 묘사로 감정선에 따른 변모를 담아온 I, II부에 비해 IV부의 사건들은 윤승호와 백나겸의 연모 감정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장치로서 배치돼 있기 때문에 대립인물들의 캐릭터성 역시 감정적인 요소보다는 기능적인 면에 치중해 있다. 즉 권력의 장을 구성하는 캐릭터는 송대감> 정인현> 윤대감의 순으로 약의 강도를 약화시킴으로써 적대적인 요소들이 줄어들다는 점만 강조될 뿐 이들의 구체적인 캐릭터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편이다. 윤승호의 과거는 현재의 캐릭터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동생 윤승원이나 하인 김씨의 설명으로 쉽게 해소되는 것 또한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모의 장과 연계된 권력의 장은 빠른 사건 전개 속에서 어떠한 장벽도 극복하는 BL의 전형적인 캐릭터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함으로써 백나겸에 대한 윤승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몰입을 강화하는 스토리텔링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

V. 결론

〈야화첩〉은 무료 서비스로 인식되던 웹툰의 유료화를 이끌었던 플랫폼 레진코믹스가 본격적으로 유통시킨 BL 웹툰이다. 〈야화첩〉은 BL 웹툰으로서는 드물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뛰어난 작화와 노골적이고 진한 성애 묘사로 연재 초부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본고에서는 〈야화첩〉이 어떻게 BL 웹툰으로서의 장르적 특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기존 BL 웹툰과 차별화함으로써 대중성을 획득했는지, 스토리텔링 분석을 통해 강한 성애 묘사 외에 복합적인 BL의 향유 요소와 그 다양성을 규명할 수 있었다.

〈야화첩〉의 첫 번째 스토리텔링 전략은 다른 BL웹툰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서사적 완성도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그와 연동하는 원색적이고도 강렬한 성애 묘사를 구현했다는 점이다. 〈야화첩〉은 18세 이상 이용가 하드 BL로, 두 주인공 윤승호와 백나겸의 감정이 달라질 때마다 씬이 등장해 서사를 추동한다. BL은 서사를 갖추려고 한다는 점에서 남성향이나 포르노와 다른데, 사랑을 완성시킨다는 면에서 서사의 방향은 순정과 순애보로 마무리된다. 이를 위해 〈야화첩〉은 성애 묘사에서도 서사에 따른 강약을 주어 다양화했다. 즉 I, II부에서는 초반 설정을 제시하고 스토리를 전개하기 위한 성애 묘사로서 다른 사건과 교차하거나 시차를 두는 등 성행위를 분절적으로 보여주며 성행위 자체가 연모가 아닌 분노와 저항의 표현이었다. 반면, III, IV부에서는 이들을 방해하는 주변 상황이 드러남으로써 이와 맞서는 연모의 감정이 상승해 성관계뿐만 아니라 성관계 전후 상황까지 길고 상세하게 묘사하는 특성을 드러냈다. 씬의 배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야화첩〉 전반부와 후반부 서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반부는 메인플롯으로, 두 캐릭터의 사랑이 완결됨으로써 탐미적인 성애 묘사가 주도하는 일반 BL의 서사이고, 후반부는 윤승호의 집안 내력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추격과 긴장의 스릴러적 성격이 강한 서사다. 특히 III부는 구체적이고 노골화된 씬으로 두 캐릭터의 감정선에 따라 성애 묘사를 다양화함으로써 해피엔드를 기대하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서사를 개입시켜 BL 서사의 해피엔드를 지연시키면서도 지속적으로 향유자들의 관심을 유지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BL이 로맨스 서사를 지향하는 것과도 연관되는데, 성애 묘사가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두 캐릭터의 숨겨진 감정이나 특별한 상황을 드러내는 장치로 작용할 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야화첩〉은 강한 성애 묘사를 전면화하면서도 성애와 탐미를 강조하는 BL과 추격과 긴장이 고조되는 스릴러라는 이질적인 성격의 두 서사를 결합하고, 윤승호와 백나겸의 감정 변화에 따라 성애 묘사를 다양화함으로써, BL웹툰의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모색하였다.

〈야화첩〉의 두 번째 스토리텔링 전략은 전형성과 극단성의 이율배반적 캐릭터성의 구현 시도다. BL에서는 공수 캐릭터가 전체 서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캐릭터성이 더욱 중요하다. 공수관계에 있어서 윤승호와 백나검은 초반의 적대적인 관계를 넘어 결국 사랑에 이르는 관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BL에서는 새로울 것 없는 전형적인 캐릭터들이다. 향유자들은 〈야화첩〉 초반 ‘개망나니 남색가’로 불리던 윤승호가 백나검과의 사랑에 모든 것을 거는 극단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상처입고 괴로워하는 순정남의 변모를 보이는 데서 매력을 느낀다. 따라서 서사 안에서 변화해가는 이들의 감정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는지 향유의 관건인데, 향유자들에게 익숙한 전형성을 극대화시켜 식상함을 극복하는 전략이다. 〈야화첩〉의 캐릭터 구도에서 윤승호와 백나검은 연모의 장과 권력의 장에서 다른 캐릭터들과 관계를 맺는다. 연모의 장은 대칭 구조를 갖고 각각 위선적 야심이 정인현과 유약한 사랑의 경쟁자 이지화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삼각구도를 이루는데, 이들의 캐릭터성이 장 전체를 주도할 만큼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BL에서 주도적인 서사를 이끌어야 할 연모의 장은 느슨한 삼각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그 결과 권력의 장이 개입하면서 강력하고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해 윤승호와 대립구도를 형성한다. 권력의 장은 과거사와 얽혀 윤승호의 아버지 윤대감과 송대감, 재등장한 정인현이 삼각구도를 이뤄 통문을 둘러싼 추격과 긴장의 스텔러 서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백나검을 지키기 위해 극단으로 치닫는 윤승호의 캐릭터성이 본격화되고 사건 해결과 함께 윤승호의 순정과 순애보도 결실을 맺게 된다. 〈야화첩〉은 BL 서사에 스텔러 서사라는 이질적인 스토리 요소를 가미해 순정과 순애보라는 BL의 정서를 완성한다. 그러나 다양한 성애 묘사로 감정선에 따른 변모를 담은 I, II부에 비해 IV부의 사건들은 윤승호와 백나검의 연모 감정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장치로서 배치돼 있기 때문에 대립인물들의 캐릭터성 역시 기능적인 면에 치중해 캐릭터성이 충분히 구현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모의 장과 연계된 권력의 장은 어떠한 장벽도 극복하고자 하는 BL의 전형적인

캐릭터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함으로써 백나검에 대한 윤승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몰입을 강화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야화첩〉은 강하고 노골적인 성애 묘사를 통해 나름대로 완성도 있는 서사를 구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BL 문법 안에서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BL이 현실을 반영하며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사나 캐릭터 모두 BL의 전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직까지도 향유자들에는 익숙한 소구 요소들이 유효하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 두고보자, 『만화세계정복』, 길찾기, 2004.
- 박기수,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구조와 전략』, 논형, 2005.
- 박인하, 『누가 캔디를 모함했나』, 살림, 2000.
- 유정원, 『웹소설 탐구』, 지식의날개, 2020.
- 이미호·프모리, 『웹소설 작가를 위한 장르 가이드9 보이즈 러브』, 북바이북, 2017.
- 한국만화가협회, 『웹툰 자율규제 연령등급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만화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 김효진, 「당사자됨을 구성하기: BL, 환상, 욕망」, 연혜원 기획, 『귀어돌로지』, 오월의봄, 2021.
- 로만 마리아 코이들, (Scheißkerle), 홍이정 역, 『나쁜 남자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1.
- 뤼스 이리가라이, (Ce Sexe Qui Est Pas Un), 이은민 역,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2000.
- 미조구치 아키코, (BL 進化論), 김효진 역, 『BL 진화론』, 이미지프레임, 2018.
- 오기 오가스·사이 가담, (A Billion Wicked Thoughts), 왕수민 역, 『포르노 보는 남자 로맨스 읽는 여자』, 웅진지식하우스, 2013.
- 권내현, 「조선 후기 신분 변동론 그 이후」, 『조선시대사학보』 제105권, 조선시대사학회, 2023.
- 김건형, 「한국 게이 로맨스 장르의 서사구조-남성 청년의 돌봄 친밀성과 게이라는 남성 젠더의 창안」, 『대중서사연구』 제28권 제3호, 대중서사학회, 2022.
- 박진, 「주류문학으로 수용된 스릴러 서사의 양상과 의미」, 『한국언어문화』,

제49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송화·박기수, 「BL 웹소설의 드라마 전환 전략 연구-왓차 드라마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70호, 인문콘텐츠학회, 2023.

이승희, 「OTT 'BL(Boys' Love) 콘텐츠'의 대중화 전략 및 수용 특징 연구: 왓차 오리지널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지식과 교양』 제12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3.

장민지, 「서브텍스트 활성화를 통한 BL(Boys' Love) 콘텐츠 대중화 전략: 왓차 오리지널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2권 제11호, 인문콘텐츠학회, 2022.

「'시맨틱 에러'는 시작일 뿐-대세 된 BL 콘텐츠」, 『스타뉴스』, 2022년 04월 30일자.

한국만화가협회 웹툰자율규제위원회. <https://acw.or.kr/rank/?pIdx=rank1>

〈ABSTRACT〉

**Study on BL Webtoon's Storytelling Strategy
– Focusing on the Enjoyment Elements of
〈Painter of the Night〉 –**

Song, Hwa · Park, Ki Soo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storytelling strategies of Boys' Love (BL) webtoon, which has grown in popularity on specialized platforms. The recent success of the drama <Semantic Error> has raised the need for research on BL webtoons' storytelling and IP (Intellectual Property) utilization strategies, showing that there are complex elements of BL enjoyment other than depictions of sex, and tha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ir diversity. <Painter of the Night> is set in the Joseon Dynasty, which is rare for BL, and its excellent writing and explicit and deep depiction of sexuality have generated a buzz from the beginning of the series, making its existence known not only to BL fans but also to those who are not aware of the genre. In this article, we analyze the storytelling strategy and how it gained popularity by strategically utilizing the genre characteristics of BL webtoons and differentiating itself from existing BL webtoons. The main storytelling strategies of <Painter of the Night> are the diversification of colorful and intense depictions of sexuality linked to the narrative and the characterization of the duality of typicality and extremity. In terms of narrative, the webtoon combines two disparate narratives, BL, which emphasizes sexual love and desire, and thriller, which emphasizes chase and tension, and diversifies the

depiction of sexuality according to the emotional changes of the two main characters. In terms of characterization, the webtoon effectively utilized the power field in conjunction with the love field to form a loose triangle. By pushing the typical characterization of BL to the extreme, the audience is forced to overcome any barriers against the emergence of new and powerful characters, strengthening immersion. Given the importance of source content with the potential for IP expansion, it will continue to be necessary to explore storytelling strategies for BL webtoons that reflect the genre's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ose of <Painter of the Night>.

Key Words : BL, BL Webtoon, Period Pieces, Sexual Descriptions,
Storytelling Strategy